

△ 입심이 좋고 말을 잘해 타인이 쉽게 호감을 느낀다. △ 자존심이 지나치게 높다. △ 쉽게 지루해한다. △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 △ 남을 잘 속이거나 조종한다. △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고, 죄책감도 잘 느끼지 않는다. △ 감동하는 일이 거의 없다. △ 매사에 냉담하고 남의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 △ 고집적인 직업이 없고 남에게 빌붙어 산다. △ 나쁜 행동을 자제하기 어렵다.



**불자 세상보기**

권경희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서울대 연구교수

**잘못된 '후광 효과'**

사이코패스 테스트(PCL-R) 20문항 가운데 앞의 10문항을 쉽게 풀어 놓는 것이다. 사이코패스(psychopath)란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극단적인 증세를 가진 사람으로, 최근 부녀자 7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바로 사이코패스의 전형이라고 한다.

강호순의 행각은 힘없는 부녀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행동도 잔인하지만, 검거된 후 보이는 행동이 더욱 경악스럽다. 수사하는 형사들에게 범죄 전모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척하다가 남달라 하는가 하면, 심지어 자신이 저지른 범행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아들이 인세를 받게 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위하는 자식들에게 전화 한 번 인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사이코패스의 특징 가운데 놀라운 점은 이들이 처음에는 남의 호감을 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호감이 가는 외모에 대

해 관대한 평가를 내린다. 인상이 좋으므로 저 사람은 착할 것이고, 저 사람의 말은 신뢰할 만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고 짐작한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후광효과(後光效果, halo effect)'라고 한다. 전문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나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분적인 속성에서 받은 인상이 다른 측면의 평가나 전체적인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현상에 의해 매력적인 사람이 땀생기 사람에 비해 대인관계나 자신감, 적

극성, 지적 능력, 성실성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는다.

강호순은 이런 후광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급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연기를 하듯 사람들을 대했다. 이런 모습을 직접 대면 경찰들은 강호순은 "쇼의 명수"라고 표현했다. 강호순에게 범을 당한 부녀자들이 잘 모르는 남자를 따라간 것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사이코패스가 강호순이나 유영철, 정남규 등의 연쇄살인범만 있는 게 아니

리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성인의 약 1%가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하며, 사회·조직 속에도 섞여 있어 범죄와 연관되지 않고도 사회에서 은밀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출세나 성공을 위해 타인을 무자비하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다. 이들은 자기만의 정의가 있어 자기만 옳다고 본다. 자기만의 생각에 꼭 맞지 않을 때 자신의 행동이 옳고 그른가,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바람직한가 해가 되는가를 물어보지 않는다. 즉 사회 가치나 양심, 이상과 관련된 기능인 슈퍼에고(super ego, 초자아)에 결함이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짐작하고도 남는다.

다행히, 흉악 범죄로 자신의 극악한 정신병질적 성향을 행동화하는 사이코패스와 범행 유형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프로파일링 팀이 우리나라 경찰에서도 2000년부터 가동돼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강호순 사건의 수사에도 이들의 활약이 컸다. 그러나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을 청소년 시기에 미리 발견하여 국가가 치료를 하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www.yosiamun.com  
**현대불교**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지사안내**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2월의 테마-예경공양**

기축년(己丑年)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는 우리 불자들이 소의 눈망울처럼 평화롭고 겸손하기를 기원해 본다.

한국인은 원래 물질에 크게 개의(介意)하지 않고 정신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온 민족이었다. 대부분 스스로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경제상황은 예전보다는 모두 잘 살고 있는 편이다.

서양에는 요즈음 "Money talks(돈으로 말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질의 가치를 위로 두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일련의 휴가를 대부분 불법수행(佛法修行)으로 채우는 부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래야 욕계(欲界)나 색계(色界)중생이 순일(純)한 정신만의 세계(無色界)로 진화(進化)하는 것이 아닐까?

부처님은 어느 날 아난과 함께 길을 지나다가 해골과 뼈들이 쌓여 있는 무더기에 절을 하셨다. 아난이 그 까닭을 물으니, "저들은 세세생생(世世生)에

**수행 첫걸음은 스승 공경**

모두 나의 부모들이었다.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절을 한다"고 대답하셨다고 한다.

선종(禪宗)의 초조(初祖)인 달마대사가 중국에 건너 와서 중국인에게 가르친 수행가운데 이치로 들어가는 이입(理入)수행은 "모든 중생은 모두 본래 청정한 참된 성품(眞性)을 지녔다고 굳게 믿는 것"이다.

오랜 세월 번뇌와 욕망으로 그 참된 성품을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다만 가리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현재 살아 계신 부처님(生佛)으로 추앙 받고 있는 달라이 라마 존지는 일년이면 족히 10개월은 세계 이곳 저곳을 다니며 설법하시는데, 세계 어디를 가든 처음 만나는 사람조차도 전혀 낯설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곤 한다.

우리는 망각 때문에 가까운 인연과 금생(今生)에 대해 더욱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각기 다른 인연(遺傳子)과 인緣(環境)으로 형성된 하나의 결과(結果)물이다. 그러므로 다른 인(因)과 연(緣)으로 형성된 사람을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시비(是非)하

는 자체가 바른 일은 아니다. 어느 때든 매우 참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들은 다만 나와 다를 뿐인 것이다.

불교수행의 첫 걸음은 스승에 대한 공경과 믿음에서 시작된다. 스승에 대한 믿음과 공경의 크기만큼 제자는 수행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3년은 겪어보고 스승을 정하라고 경전에서 말하고 있다.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공경하고 은혜를 갚는 것은 '나'라는 개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에 그들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 된다. 그래야 세세생생에 얽힌 업(業)도 풀려 해탈(解脫)도 가능하다.

부처님께 예경(禮敬)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남보다 높고 귀한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인과경(因果經)>에 설하고 있다. 새해에는 부처님의 예경과 공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는 불자들이 늘어나기를 기원해 본다.



은월 스님  
동국대 강사

**社說**

**문경 국제선센터 건립의 의미**

경북 문경 회양산 봉암사 인근에 국제선센터가 설립된다. 이는 선센터는 불교계가 주축이 되어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문경시가 봉암사와의 협약을 통해 건립을 하게 된다니 더욱 의미가 크다.

신라 구산선문 가운데 회양산과의 분할이었던 봉암사는 현재 조계종 특별선원이다. 60여 년 전 성철 스님을 비롯한 선지식들이 선종의 기운을 집결해 웅망정진 결사를 함으로써 깨달음의 현전도량으로 삼았던 곳이기도 하다. 선종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봉암사 인근에 국제선센터를 세우는 것은 지리적인 의미도 상당한 것이다.

문경시와 봉암사가 역사적 배경이 탄탄한 곳에 국제선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더욱 명료하게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물질문명에 사로잡힌 인류의 정신건강을 점점 중증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와 민족 간의 전쟁은 물론 '물자가 살인'이 횡행하는 현대사회는 그야말로 '마음의 종합병동' 그 자체다.

황폐해 가는 인류의 정신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로 선 수행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가운데 문경에 들어 설 국제선센터는 한국에서 시작되는 인류의 정신건강 회복 운동의 요람이 될 것이다. 국제선센터는 단순히 한국불교의 선수행을 세계에 알리는 것에 만족하는 곳이 아니라 깨달음의 세상을 열어가는 터전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불교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한국 불교 선수행법으로 인류를 구제하는 중요한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보와 유물의 간격**

'성보인가 유물인가?' 불자들은 불상이나 탑 불화를 성보 즉 공경과 예배의 대상으로 여긴다. 그러나 문화재를 연구하는 학자나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유물'로 여긴다. 이 차이를 불자들은 쉽게 인정할 수 없다.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수많은 성보들은 바로 경배를 위해 조성된 것인지 예술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술적인 입장이나 행정적인 입장에서 마냥 불자들의 생각처럼 경배의 대상으로만 여길 수 없는 한계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성보와 문화재(유물)로 나눠 보게 되는 입장의 차이를 두고 갈등을 일으킨 경우도 거의 없다. 그런데 최근 문화재청이 그 자체가 하나의 도량으로 상징되는 익산 미륵사지석탑 해체 과정에서 종교적 위나 의례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점은 권위주의의 행정에 다름 아니다. 석탑의 해체과정에서 발견된 사리를 두고 보물찾기라도 한 양 발표하기에 급급했던 모양새도 불교계의 사리에 대한 신앙적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던 것이다.

조계종과 불자의원들의 모임, 지역 불교계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사후약방문이다. 불교계도 향후를 대비해 문화재 관련 행정과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일이 터진 뒤에 항의하고 사과 받는 것은 일이 터지기 전에 단단하게 관리 점검 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공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공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공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도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짚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대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 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중비법입니다. 책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 인터넷으로 공부합니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사주통달책이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 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